

'경고→환대' 트럼프 꺾뚫은 李대통령 '거래의 기술' 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던진 것은 2시간여 후 백악관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돌발 변수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자칫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외교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나돌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라는 말을 이끌어냈고, 양국 정상은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품위 있는 회담을 진행했다. 외신들은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외신도 주목한 K-협상 전략...노련하게 실리 확보

외신들은 특히 '경고'에서 '환대'로 바뀐 이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주목했다. 돌발 변수에 침착하면서도 노련하게 대처했고,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외교 전략을 구사하면서 경제와 안보, 한반도 문제에서 실리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젤렌스키·라마포사 같은 외교 굴욕 피해 노련했던 K-협상전략...PASS 전략으로 공략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 또는 혁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지만 이 대통령은 노련하게 대처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백악관 집무실 장식을 칭찬하고,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전과 아철 전략을 구사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CNN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와 '동맹에 대한 압박'이란 위협 요소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숙청이나 혁명'에 대한 모호한 불만을 철회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 대통령의 철저한 준비가 효과

있음을 인정했다. 다른 외국 정상들이 구사했던 '골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악관 실내 장식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극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987년 회고록 '거래의 기술'을 읽고 준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칭찬-동의-제안-요구 'PASS' 전략으로 트럼프 공략

이 대통령은 '칭찬(Praise)-동의(Agree)-제안(Suggest)-요구(Seek)'의 일종의 'P-A-S-S'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특성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백악관 집무실의 금빛 장식이나 과거 한반도 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 업적이나 소유물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꿰뚫은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갈등보다는 공통분모를 찾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이슈에 정면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로 반박하기보단 '안보가 튼튼해지는 동맹 현대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경제와 안보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도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원자력, 국방 분야 등에 대한 대미 투자 계

획을 밝혔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 하자는 제치 있는 제안도 했다.

/뉴시스

"부르면 갑니다"... 광주투어버스 9월부터 운행

운행구역 선택해 호출하면 찾아오는 수요응답형버스(DRT)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용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오는 '광주투어버스'를 운행한다.

'광주투어버스'는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를 적용한 관광형 버스다. 이용자가 광주투어버스 앱을 통해 정류장을 선택해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투어버스는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동하며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요거

점을 오간다. 운행구역(거점)은 ▲광주송정역(KTX)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농성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비엔날레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서장감성조망대 ▲기아 챔피언스필드 ▲대인시장 ▲광주국제양궁장 등이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에 따라 광주를 찾는 많은 스포츠·문화 관광객들이 교통거점에서 행사장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양림동을 포함해 서장감성조망대, 대인시장까지 운행구역을 확대하여,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다.

운행기간 중 KIA타이거즈 홈경기기 있는 날은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과 농성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운행해 광주를 찾은 원정 관람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하며, KIA타이거즈 홈경기기 있는 날은 밤 10시3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요금은 1회 기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다. /전광훈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광주서 시도대표회의 개최

제267차 시도대표회의, 전국 시·도 대표회장 등 150여 명 한자리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7차 시도대표회의가 26일 광주 힐리데이호텔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한 고광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이경진 농협중앙회 광산지점장, 이동은 동곡농협 조합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오찬 간담회, 시도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유대의 뜻을 담은 방문기념패를 주요 내빈에게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의정활동 공로자에게 의정부사상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의정부사상 수상자는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광주 남구의회 의장, 정상용 광주 북구의회 의원, 이우형 광주 광



산구의회 부의장 등이다.

이후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휴 국가재산 활용과 정부 포상 선발 시 지방의회 공무원 별도 인원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김명수 회장(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는 민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통해 지방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상생과 협치의 노력에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기초의회의 권익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준행 기자

광주 서구, 골목형상점가 성공전략 전수

지자체에 성공요인 공유... 전국 골목경제 활성화 선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대한민국 골목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확산을 이끌고 있다.

서구는 26일과 27일 전남 무안·순천에서 열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전남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협의

회'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서구의 선도적 정책을 공유했다.

발표에 나선 홍석기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주민·상인 협력 ▲가맹점자 간소화 ▲은누리상품권 등록 설명회 등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은누리상품권 사

용 확대 이후 상인 매출이 20~30% 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진 성과를 공유했다.

서구는 관내 1만1천여 개 상점을 119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은누리상품권 활성화를 꾀하는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799개 골목형상점가(7월 말 기준) 중 15%가 서구에 몰려 있어 단일 자치구 기준 최다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